

# 이재명 대표, 당내 광폭 소통 행보... 내홍 수습 총력

### 의원 개별 접촉·그룹별 만남 추진...소통 통해 리더십 재정립 강성 지지층엔 "공격 중단" 요청...비명계 당직 인선 카드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소통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은 물론 그룹별 만남도 이어가고 있다.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리더십의 재정립은 물론 추후 이어질 검찰 수사의 압박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여론 인사들의 5·18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도 쟁기고 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미래' (더좋은미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통이 부족했다"며 "최근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 내 다양한 목소리는 본질이고, 하나의 목소리와 생각만 있다면 그건 정당이 아닌 조직"이라며 "다름이라고 하는 게 토론을 통해 새 가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공식적 자리 말고 부드러운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

히기도 했다.

더미래 대표인 강홍식 의원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 소통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대안 정당으로 새비전과 실천 어젠다를 만들어야 하며 제2의 뉴 민주당 플랜을 만들어 신나는 모습, 국민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가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이 논의된 방향으로 더미래는 당 대표와 함께 단결하고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엔 친문(친문재인) 성향 연구

모임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과 만났고, '김근태계' 모임으로 불리는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과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정이 빽 때마다 짬짬이 의원회관을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전화를 걸어 시간이 맞으면 해당 의원 방으로 찾아가 일대일 '번개 차담(茶談)'을 하는 형식이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을 향해 고강도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도 내용 타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전날 당사에서 이들과 만나 "우리안의 동지에 대한 중오심을 최소화하고, 그 충구를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며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등 회복 추세에 있다며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정당대회 컨센션 효과가 끝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그간 당 지지율이 낮았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초입기에 들어간 당직 인선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당내 갈등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사무총장 등 당내 주요 당직에 중용한다면 당내 소통과 신뢰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화기애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각각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 조공 외교"

###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론 인사들의 논란성 발언을 두고 여권을 비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여권을 대대적으로 성토했는 규탄대회 분위기가 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일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백기투항 등 운동 양보 소식만 들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 탄핵 당한 정권이 벌어진 일을 답습하지 말라"고 했다.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다.

당의 지역적 기반인 광주에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를 더욱 부각하려는 기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앞에서는 사죄하는 척하다 뒤에서 짐을 뺐는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전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 윤재갑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5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교육,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헝가리와 같이 신혼 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 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룰 국가 최대의 의제이다"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법 협력하자"

### 김기현 국힘대표, 민주당 방문해 취임 인사...17분간 대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17분 가량이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며 "민생 문제 해

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는 마음을 늘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그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거 아니냐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 믿는다"

며 "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각자)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호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로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b>경매교육 [특수 전문반]</b> 기초반, 중급반	<b>전원주택 (1채) → 7,000만</b>	<b>상가매매(상무지구)</b>								
<b>*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b>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 경매 물건 추천 ◀ <table border="1"> <tr><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김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tr> <tr><td>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김평가 62억 → 최저가 35억</td></tr> <tr><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td></tr> <tr><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김평가 11억 → 최저가 11억</td></tr> <tr><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김평가 50억 → 최저가 35억</td></tr> <tr><td>북구 오치동 (주택) ▶ 김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tr> <tr><td>남구 월산동 (주택) ▶ 김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tr> <tr><td>정성로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td></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김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김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김평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김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김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김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로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보3천, 월수익 380만)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김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김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김평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김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김평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김평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로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김평가 4억 → 최저가 4억										
<b>010-2614-9801</b>	<b>010-6670-9800</b>									